

“상무국민체육센터 샤워실만 가면 악취 진동”

예산 110억 투입 개관 1년 만… 탈의실 곰팡이도
“하수 배관 점검 등 필요… 근본적 대책 마련할 것”

지난해 5월부터 상무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이용하고 있는 A씨는 샤워실에 들어가려는 순간 코를 찌르는 이상한 냄새에 찻지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후 센터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달라진 게 없었다. 며칠 지나고 방문한 샤워실은 악취 때문에 헛구역질까지 날 정도로 더욱 심각했다. 그는 운영을 시작한 지 2년밖에 안된 센터에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반복되는지 불만을 토로했다.

광주 서구 상무국민체육센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문을 연 지 2년여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악취가 진동하고, 시설 운영 주체인 서구시설관리공단도 원인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서구 등에 따르면 상무국민체육센터는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지난 2018년 국토교통부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시비를 포함해 총

110억원의 예산을 들여 5년 만인 지난 2023년 완공. 같은 해 4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개관 1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샤워실에서 알 수 없는 악취와 곰팡이가 발생하면서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지경에 이른 것. 관리 주체인 서구시설관리공단이 원인 규명에 나섰지만 정확한 이유를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악취에 그치지 않고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샤워 시 물이 고이기도 하고, 환기가 되지 않으면서 탈의실 내 타일에 새까만 곰팡이가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센터 이용자들이 수시로 센터 직원들에게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근본적인 원인 해결보다는 ‘락스’ 등 약품처리, 청소 등 땀질식 처방에만 그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김태진 서구의원은 제32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무국민체육센터 샤워실 악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상무국민체육센터 샤워실 악취 문제는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중 하나”라며 “그러나 매번 ‘락스’ 청소로 땀질식 처방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수 배관 점검 및 체육센터 지하층 쓰레기매립 상태 등 다각적인 점검을 통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도 이 문제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악취 등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 업체 등과 원인 규명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문제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서구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이용객의 민원에 따라 약품 처리, 청소 활동 강화, 지속적 모니터링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악취 등 불편사항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 yo1404@gwangnam.co.kr

SKT 유심, 중고마켓에 판매 글 등장

당근마켓 15만원 매물 나와…누리꾼 비판에 삭제

SK텔레콤이 해킹 사고에 따른 개인 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유심(USIM) 무료 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가운데 중고 거래 사이트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유심을 판매하는 사례까지 등장했다. 지난 28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는 ‘SKT 유심 1장 15만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자신을 SK텔레콤 판매점 관계자라고 밝히며 “해킹 사태로 유심 교환이 불리고 있다. 일반 판매점에서(는) 손님이 휴대폰을 판매할 때 고 여유분을 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매 수익을 낼 수 있는 걸 포기하고 드리는 것이니 업무처리 비용과 프리미엄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반인께 판매하는 것이 아니다. 자산이 많으신데 당장 바뀌어야 할 최우대 고객(VVIP) 중에서 연락을 달라”고 적었다. 해당 글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누리꾼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일자 당근마켓은 해당 게시물을 즉시 삭제했다. 당근마켓 측은 “전문 판매업자에 의한 정책 위반 사례로 판단해 삭제 조치했다”며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당근마켓은 반복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전문 판매업자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나 과도한 웃돈이 붙은 거래도 정책 위반으로 간주하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울긋불긋 꽃대궐 맑고 화창한 날씨를 보인 29일 광주 북구 동강대학교 교정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철쭉꽃을 바라보며 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청년 정치 대표성 확대·구조적 개혁 절실”

사회대개혁 청년공감버스 출정 기념 청년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40세 미만 13명·청년 법안 가결률 2.45% 불과

‘사회대개혁 청년공감버스’ 출정을 기념해 광주에서 열린 청년토론회에서 청년 정치 대표성 확대와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비상행동은 29일 광주 동구 YMCA 백제실에서 ‘한국 정치의 위기와 청년의 역할’을 주제로 사회대개혁 청년공감버스 출정 기념 청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영기 상임대표는 “혁명의 도시 광주에서 청년들과 사회대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어 뜻깊다”며 “이제는 청년이 정치의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에 서야 할 때”라고 운을 뗐다. 이후 김태진 광주청년센터장은 “청년이 정치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정치가 청년을 외면했다”면서 “국회의원 300명 중

40세 미만이 13명으로, 청년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30%를 차지함에도 정치적 대표성은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꼬집었다. 이어 청년 관련 법안의 가결률이 2.45%에 불과하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청년의 삶이 정치에 반영되지 않는 구조가 고착화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는 청년 세대의 극우와 흐름과 그 배경을 국제 사례로 분석했다. 그는 극우 성향의 밀레니얼 대통령(아르헨티나)이 당선된 배경을 언급하며 “불가 폭동과 경제 붕괴로 기존 정치에 절망한 국민들이 극단을 선택했다. 오히려 경제는 이후 회복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보정당이 성소수자와 기후위기 대응에만 집중하는 사이, 노동자 계층의 목소리는 급격히 사라졌다”며 “정치가 외면한 자리를 ‘확고한 변화’라는 언어로 대체하는 정당들이 채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정치 개혁이 없다면 청년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태진 센터장은 토론회에 참여한 청년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답했다. 그는 청년들이 정치에 냉소적인 이유에 대해 “현실 정치가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정당 내부에서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또 극우화가 급증한 이유와 해결책에 대해서는 “단순히 정치적 이념을 넘어서는 문제다. 정치인들이 진정으로 국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SOCIETY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오늘의 날씨

예보 05:43 달출 07:07
예전 19:17 달진 22:36



광주	☀	10~26
목포	☀	12~23
여수	☀	12~19
순천	☀	9~22
구례	☀	8~25
광주	☀	9~24
임도	☀	11~23
흑산도	☀	12~20
고흥	☀	7~22
진도	☀	11~21

목포	밀물(고)	03:57 / 15:54
	썰물(저)	09:03 / 21:06
여수	밀물(고)	10:38 / 23:17
	썰물(저)	04:32 / 16:37

택시기사, 보이스피싱범 검거

만년필 ○...택시기사의 날카로운 눈썰미에 보이스피싱범이 검거돼. 영암경찰서 신북파출소는 29일 중국 국적의 보이스피싱 피의자 A씨를 긴급 체포. A씨는 전남 보성 벌교에서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1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아. 경찰은택시기사로부터 ‘승객이 보이스피싱범 같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이동 경로를 파악해 차량을 추적해 A씨를 체포. A씨는 보성 일원에서 1200만원을 수거하고, 영암 신북면에서 또 다른 피해 금액을 편취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돼. 경찰은 A씨에 대한 여죄를 조사할 방침. 신북파출소는 법인 검거에 도움을 준 택시 기사에게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검토. 영암·한창국 기자 hck1342@

만남, 당신에 이상형!

바로연

에서 인연을 만나다.

초혼·재혼 결혼전문업체 바로緣 1644-5432/062.381.000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173 대영빌딩 3층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

광주·서구·국내·09·0005호

‘만남’에 우연이란 없습니다.